

건달만한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.

다들 숨쉬고 있나요?

왜 쉬죠? 두 가지 대답. - 살기 위해서. 살았으니깐.

음식 먹고 마시죠? 왜?

호흡기관이 완전한 숨을 만들어 쉴 수 있나요? 호흡기관이 아무리 좋아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죠?

공기는 의례 있다고 생각하죠? 물에 들어가려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죠? 어디나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.

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.

나 밖에 있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.

나는 그런 것을 공급하시는 분에게 의존한다는 신앙 고백이다.

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의지하고 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감사하며 산다.

행 17: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

스스로 잘 살아간다고 착각할 지 모른다.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며 산다.

순간마다 - 호흡 끼니마다 -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. 밤에 자는 것은 무슨 연습 시키는 것인가? 죽는 연습

아침에 일어나는 것은? 부활

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살아가는 과정에 다 보여주셨다.

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죽은 존재로 보신다.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.

요 5: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

→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

눅 24: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-

구약성경 전체 다 예수님에 관해 썼다.

요 5: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

성경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심. →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신다.

요 20:31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-> 생명을 얻는 것.

성경의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. 교훈의 순종하여서 극도하는 것이다.

유교 - 선행을 하여서 성자 극도. 공자를 믿는 것은 아니다.

불교 - 석가모니의 교훈을 받아서 자기가 성불하는 것이다.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니다.

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.

인도 - 간디 - 영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.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. 독립운동하면서 산상보훈을 실천함. 무저항 방법.

Gandhi attempted to practice nonviolence and truth in all situations...

우리가 예수의 교훈을 잘 실천하는 자체로 죽은 자가 산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.

아담 안에서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다.

고전 15: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

죽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 날 수 있는가? 아니다.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려줘야 살아난다. 유일한 분이 예수

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. 왜 그럴까? 하나님의 아들이라서?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. 우리는

죽은 사람보고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난다. 그런데 우리도 죽을 사람 살릴 능력이 있다.

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그 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? 알아야 한다.

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? 물으면 대답해줄 이유가 있어야 한다.

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. 생명의 씨를 아담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면서 보여주셨다. 이 세상의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씨로 난다. - 여자는 기르는 것이다.

남자가 선악과를 먹고 썩어질 씨가 된 것이다. 죽은 것이다.

창 3:15 여자의 씨를 주셨다. 이 구절은 뱀에게 말씀하신다.

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(씨)도 여자의 후손(씨)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

**zar·‘ah** - זרע Seed 종자

뱀은 여자의 씨와 싸운다. 뱀의 종자가 아니고. 뱀은 여자와 싸움이 아니고.

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종자라고 하신다. 남자의 종자가 아닌 다른 한 생명의 사람이 온다.

사 7: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

이 세상의 구주로 오는 분은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심. 왜 안 되는가? 남자의 씨로 오는 자는 아담안에서 죽은 종자로 난 사람이다. 갓 태어난 아이도 사망의 종자로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한다.

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성자라고 칭을 받을찌라도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망이다. 그래서 공자. 석가모니.

마호메트 다 아담의 종자다. 죄인이다.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훌륭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는

있지만...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. 왜냐면 그들이 이미 사망의 종자라서.

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실 분은 여자의 씨로 오셔야 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야 만 했다.

예수님은 생명의 씨가 우리와 다르다. 우리는 죽을 씨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씨로 태어나셨다.

그래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.

하와 이름- 아담이 지었다. 언제 지었나?

“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” 선언 다음에 지어줌. 창 3:20 절에 나온다.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.

하와 = 생명 חַוָּה haw·wah

아담은 자기 씨는 사망인지 알았다. 여자를 통해 다른 씨가 온다는 걸 알았다. 창 3:15 을 믿는 신앙고백이었다.

아들을 나서 가인이라고 했다. 가인 = 여자의 씨를 얻었다는 뜻

창 4:1 가인이 여자의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.

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- 가인이 아담의 씨로 낳다고 성경은 밝혀냈다.

마 1: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. 창 4:1 과 짝 절수.

예수는 남자와 상관 없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한다.

마 1:18-21 <sup>18</sup>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<sup>19</sup>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- 요셉은 도덕적 의인이었다.

<sup>20</sup>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

<sup>21</sup>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

왜 정혼한 여자에게 잉태시켰을까?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. 정혼한 남자가 보호하면 된다.

또 둘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 - 다윗의 호적에 올라간다.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입증되 된다.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.

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다.

요 3:1-8 중생에 대해 말씀하심

<sup>6</sup>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-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영이다.

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육이다.

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. 모습은 똑 같다. 생명의 근원이 전혀 다르다.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과 상관 없이 오셨고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.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이다.

삼위일체 -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 같다고 말한다. 그런데 왜 아버지. 아들. 성령인가?

마 28:19 삼위 일명 -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

ὄνομα - 이름은 단수다 - 여호와. 주어가 복수인데 이름이 다 같다는 이야기다.

예수는 구원하는 여호와라는 뜻이다. 원래 이름은 다 여호와다.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다.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인가? 우리는 예수님이 왜 아들인지 알아야 한다. 물론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...

예수님께서서는 여호와신데 아들의 위를 자원해서 취하셨다.

사 9: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

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다.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것이다.

빌 2:6-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<sup>7</sup> 오히려 자기를 비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

왜 그랬을까?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.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안 취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 한다.

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-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다. 원래 신분이 아들이 아니시다.

엡 1: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

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. 예수 없이 교훈을 잘 실천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.

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나? 부활하심으로.

롬 1:3-4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<sup>4</sup>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

ὀρισθέντος 선포하다 확정하다. → **having been declared**

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헛일이다.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적으로 선포됐다. →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.

나도 예수 안에서 그와같이 부활 할 것을 믿는다.

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.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 하심으로 보여주셨다.

행 17: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

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은 필요없다. 불교, 유교 이슬람 다 똑같다. 우리도 부활 못한다. -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.

고전 15:15-19 부활 못 하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.

고전 15: 32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

생명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. 부활의 종교.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.

행 4: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으니 행복하다.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모습이 사랑이다. 성경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과 다르다.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다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니 복되다.